

조무성

본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전인건강연구회 공동대표

의료 전문화와 전인건강 문화 -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

1. 문제제기 : 문화시대의 명암

현대는 전문화의 시대다. 전문가는 살아남고 비전문가는 도태된다고 한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대량생산이 진행되었고 기존의 조직형태로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Max Weber는 산업혁명의 생산양식에 걸맞는 조직형태로 관료제를 제시했는데 그 특징으로 법적 규율성, 계층제, 문서화, 봉급, 직무의 전력투구, 전문화 등을 말하고 있다¹⁾. 현대사회환경의 변화로 Weber의 관료제모형이 계층제나 문서화, 직무의 전력투구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계적 계층제 구조보다 유기적 신축적인 구조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²⁾ 많은 문서들이 컴퓨터의 디스크에 저장되

1) Fred A.Kramer(ed), *Perspectives on Public Bureaucracy* (Boston:Little Brown,1981), pp.51

-54.

2) Warren G Bennis,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the fate of Bureaucracy" in Fred A.Kramer(ed). *ibid*, pp.5-26.

며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 외에 부분시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화의 특징은 법적 규율성과 함께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문화는 분업에서 출발한다. 분업을 통하여 일에 익숙되었을 때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된다. 분업은 인간의 적성이 다르고 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³⁾ 인간은 자기 취향에 맞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 되고 많은 일보다는 적은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분업으로 인해 일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거나 결여되었을 때 분업은 도전을 받고 위기에 직면한다. 분업을 통한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일의 능률과 능력집중의 효과가 있는 반면 의미상실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⁴⁾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조정과 협동의 필요성은 커지게 되나⁵⁾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면이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의료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이나 의대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전문화가 잘 되어 있고 전문화가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의학이 기초의학, 임상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면서⁶⁾ 하위영역으로 계속 세분되고 있고 의과대학이나 병원조직은 이러한 분업화에 따른 전문영역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진단 기기와 기법의 발달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다양화된 진단방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분업에 따른 전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산업화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몰인격적인 것으로 하는 관료제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 속의 전문화는 특정한 부문의 능력을 개발하고 의료업무를 능률화하며 의료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과 의료의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강회복을 통해 인간

3) Luther H. Gulick,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s" in *ibid.*, pp.64-65.

4) *Ibid.* 65-66.

5) *Ibid.* 66-87.

6)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484-485쪽.

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영역끼리 협동하고 조정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산출되고 있다. 인간의 질병이 몸은 물론 정신과 주위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특히 암, 성인병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⁷⁾. 따라서 실제적인 면에서 전문화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인격을 구성하는 마음과 몸 그리고 주위환경의 병을 상호 협력하여 진단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우리는 전인건강과 전인치유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병을 공무원과 국민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행동의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기 때문이다. 한국병은 우리 나라 국민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이 병든 것이라고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전인건강과 전인치유의 시각에서 한국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학자나 의료인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이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응이 긴밀하게 협동할 때 한국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성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인건강이나 전인치유의 필요성은 전문화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문화시대에 전문화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묵힘은 물론 생존대열에 낙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기독교인이 성경적인 인간관에 입각해서 자신의 전문영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⁸⁾. 전인건강이나 전인치유의 시각은 의료계는 물론 기독교계에서조차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독교계에서 성경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7) 통계청, 사망통계연보(1992). 21쪽. 83년 암 12.3%, 순환기계 27.9%; 91년 암19.2%, 28.7%.; 92년 암 20.9%, 순환기계 29.5%로 특히 83년에 비해 암사망률은 급격히 늘었다.

8) 고린도전서 12장 12-27 .몸과 지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각 지체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 낼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다른 기독교단체와 같은 기독교단체의 분업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식이 없으면 자기의 전문분야만 인정하게 된다.

할 것이다. 전인건강이나 전인치유의 시각의 기독의료계로의 확산은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것이다. 즉 성경적인 전인건강문화 형성을 위해 기독인 제자 삼기를 계속 하면서 이런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전인건강이 무엇인가와 그 중요성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루고 이러한 전인건강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인치유문화를 형성할 것인가의 질문에 차례로 답해보려 한다.

II. 전인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1. 전인건강의 개념

1) 학문적 배경

전인이란 마음과 몸의 통일된 인격체다. 일반적으로 전인건강은 인격체의 온전한 즉 마음과 몸의 조화로움을 의미하며 더 넓게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인건강이나 전인치유에 대해 기독의학자들이나 상담 목회자들 가운데서 비교적 관심이 많은 편이다. 1980년대와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의 신학적 관점에서 건강과 의학의 문제들을 다룬 책들이 총서로 발간

9) 마태복음 28:19,20절. 지상명령을 전도와 양육의 사명으로 생각할 때 제자 삼는 지상명령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특히 직업과 같은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 나아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율터에서의 제자삼기다. 지식이나 기술에까지 기독교세계관이 밀반침되어 있어야 한다.

된 적이 있다¹⁰⁾. 한국에서는 치유선교학과의 이명수 교수가 이 방면의 개척자로서 인재들을 키워왔다¹¹⁾. 누가회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소식지나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그리고 누가회 내에서 최근 전인치유연구회의 발족과 함께 더욱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한 기독교간호사협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학교수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고신대의대 간호학과에서 전인간호의 본격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²⁾. 1996년 6월 20일에 발족된 전인건강연구회를 통해서도 전인건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애쓰고 있다. 드물게는 신학대학에서 재직한 교수 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 개인적인 저서는 드물고 편찬한 서적이나 번역이나 책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치유센터를 운영하거나 치료를 하는 목회자와 의사 가운데서 이곳에 대한 관심을 둔 분들이 있다. 전인치유와 전인건강 대한 연구는 신학이나 의학분야에서 큰 흐름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인건강이라는 용어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계통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뉴에이지 운동에 힘입은 여러 가지 동양의 사교를 복합시킨 혼합주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잡지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인도나 중국의 건강법과 의술들이 뿌리 박고 있는 사상 즉 힌두교나 음양오행 등의 사상이 융합되어 전인건강의 이름으로 미국에 파고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이러한 혼합주의적 열풍이 일기 시작했으며 특히 기'에 대한 무비판적인 열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입장에서 전인건강과 전인치유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학문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인치유와 전인건강은 실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을

10) Martin E. Marty, Health and Medicine in the Lutheran Tradition (N.Y.:Cross Road,1966)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과 이교도권을 포함해서 14권정도 출판됐고 최근에는 Leonardo I.Sweet가 Health and Medicine in the Evangelical Tradition (Valley Forge,Pennsylvania: Trinity Press,1994)이 나왔다.

11) 이명수, 치유선교론(서울 :나임, 1993)

12) 위의 책 20 쪽. 김수지 교수는 전인간호를 간호의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신의대 간호학과의 강은실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전인간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과과정을 개발하며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구소 발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은전한 인격체로서 성숙하게 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개인차원을 넘어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등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므로 보다 건강한 인격체와 행복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2) 성경적 전인건강의 개념

전인건강의 개념에 대한 의학관련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논의가 있었겠고 비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한 전인건강의 논의도 있었지만¹³⁾ 이곳에서는 전인건강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으로 성경적 인간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따라서 이곳의 전인건강이라는 말은 성경적 전인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전인건강개념에 포함해서 사용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전인치유도 성경적인 전인치유의 의미로 사용된다.

전인건강이나 전인치유를 추구하는가의 여부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질문이다¹⁵⁾. 수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인간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도 예외가

13) 특히 국내에서 기독교적인 전인치유의 관점을 저서 치유선교론에서 이명수 박사가 제시하고 있다. 신학적 배경이 다른 입장으로 이상구박사가 복음과 건강에서 그러한 관점을 다루고 있다. 성경적인 인간관과의 연결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의공학자인 이규학 박사도 특히 암치유에 있어 전인적인 포괄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전인치유의 관점으로 장두석, 민족생활의학(서울:정신세계사,1994)에서 전인치유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포괄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4) Anthony A.Hookema, Created in God's Image(Grand Rapids :William B.Eermans Publishing Company ,1988),pp.66-95. Hookema는 인간의 형상을 본래의 이미지(original image), 죄로 왜곡된 이미지(perverted image),구속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renewed image)재림의 영광을 입을 완성된 이미지(perfected imag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성신의 능력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5) Leslie Stephen(ed.),The Study of Human Nature (N.Y.: Oxford University Press,1981). 이 책에서는 고대의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그리이스철학과 중세철학, 현대와 근대의 인간성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20세기의 철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인간론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조무성,한국행정인연구:인간형, 형성환경, 태도의 분석(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8), 1쪽.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료인들의 인간관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의 정도가 위급할수록 그렇다. 예컨대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데 있어 생물학적 생리학적 존재로 보면 정신적이거나 환경적 접근이 무시되기 쉽고 정신적인 존재로만 보면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접근이 무시되기 쉬울 것이다. 환경적인 면만 고려하면 정신적이고 생물학적인 접근이 무시되기 쉬울 것이다. 전인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어느 한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몸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할 뿐 아니라 인간을 생리적 생물학적 존재만으로 또는 정신적 존재만으로, 환경적 존재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생리적, 정신적, 환경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인건강이란 전인관에 입각한 건강으로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인간의 건강인 것이다. 전인건강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는 전인치유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전인건강은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뿐 아니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개념이다. 인격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병든 환경의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인 전인건강은 성경적 세계관 특히 성경적 인간관을 전제로 총체적으로 인간을 치유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하는 것이며 넓게는 인간이 황폐화시킨 환경의 회복과 유지와 증진을 포함한다. 성경적 전인건강과 비성경적 전인건강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¹⁶⁾

전인건강은 개인차원의 인격체의 건강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인격체를 둘러싼 환경에도 적용된다. 즉 인격체는 개방체제로서 끊임없이 환경의 영

16) Anthony A.Hookema, opcit.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격체의 건강은 환경의 건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격체가 불건강한 사람이 증가할수록 환경의 건강은 악화되기 때문에 개별 인격체와 환경의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격체의 건강 외에 환경의 건강에는 가정건강, 학교건강, 직장건강, 사회건강과 자연의 건강이 포함된다. 교회의 건강도 포함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건강에 있어 정치 경제 교육의 건강과 시민문화의 건강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에게는 완벽한 전인건강은 없고 이 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없다. 개인이나 사회에 완벽한 건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여 추구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과 맘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개인이건 사회이건 죄로 인해 병들어 있다. 전인건강은 개인과 우리의 사회의 병을 바로 보며 치유를 위해 나아가는 삶의 의미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이러한 의미를 찾아가는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인건강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 -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잘 살고 잘 죽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인건강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된 몸을 가져서 완벽한 전인건강을 누릴 것이다.

2. 전인건강의 중요성

1) 전문화의 한계의 보완

앞서 지적한 대로 의학의 전공분야별 발전과 생존과 경쟁을 위한 전문가의식이 고조에 따른 의학이 계속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¹⁷⁾. 이것은 의료의 관료제화를 촉진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대조직의 관료제 속의 전문화

17)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484-485쪽.

는 특정한 부문의 능력을 개발하고 의료업무를 능률화하며 의료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과 의료의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인치유와 전인건강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환자와 비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전인치료와 이러한 시점에서 돕는 간호사의 전인간호는 전문성을 연결하고 조정하며 통합하는 기능을 통해 의료 전문화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건강의 적절한 범위

전인건강은 건강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편협하거나 단편화된 점을 막아 준다. 건강회복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영역 끼리 협동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산출되고 있다. 인간의 질병이 몸은 물론 정신과 주위환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특히 암, 성인병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¹⁸⁾ 따라서 실제적인 면에서 전문화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인격체를 구성하는 마음과 몸 그리고 주위환경의 병을 상호 연관지어 진단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전인간호는 인격체의 온전함을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 교회 등을 매우 중요한 대상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늘상 말하는 한국병의 적절한 범위는 전인건강과 치유의 개념으로부터 바르게 설정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병을 공무원과 국민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행동의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며 한국병은 우리 나라 국민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이 병든 것이라고 넓게 정의하는 것이 한국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전인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의료진은 물론 비의료인으로서 건강에 종사하는 영양, 운동, 예술, 환경, 봉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특히 전인치유의 시

18) 통계청, 사망통계연보(1992). 21쪽. 83년 암 12.3%, 순환기계 27.9%; 91년 암 19.2%, 28.7%; 92년 암 20.9%, 순환기계 29.5%로 특히 83년에 비해 암사망률은 급격히 늘었다

에서 한국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전인건강의 시각은 건강에 관한 폭 넓은 시각으로 전문직종인 의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한국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성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환자의 균형적인 치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전인치유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며, 이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전인치료와 전인간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을 생리적, 생물학적으로 보는 인간관에 입각한 분석적 서양의학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통해 장티푸스, 결핵, 천연두 등의 수많은 질병의 치료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암,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과 같은 성인병의 치료에는 그 한계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암이나 성인병에 있어서 전인치유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전달하기 위해 필자의 투병의 예를 들어 보려한다. 필자는 1993년 7월 19일 환자로서 위암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다소 받았으며 지금은 정상생활을 하며 재발의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투병과정에서 전인치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다.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한 채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관에 입각한 치료방법들이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삶의 질이나 연장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투병하는 암환자들 특히 말기 암환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

생리적, 생물학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노고 자체는 고마운 일이다. 치료를 통한 생존율이 극히 낮으며 초췌하고 어두운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정성어린 수고에 대해 더 큰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암환자는 시한부인생을 살거나 생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재발에 대한 고심

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환자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 의사로서 의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간호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호스피스를 간호영역에서 주도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인간호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참으로 중요하다.

암환자는 궁금한 점이 많다. 암이라는 것을 안 경우 자신의 병의 상태나 먹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한다. 의사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병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한다. 환자가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병원일수록 시간에 쫓겨 환자를 대하는 것이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식사나 심리적인 상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신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밖에는 암환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소위 민간요법의 책과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¹⁹⁾. 이러한 배경에는 먹거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우들이 환자를 방문해 정성껏 기도한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지속되기가 어렵다. 자기가족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우가 아니면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시초부터 병원치료를 무시해 버리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 낫게 한다는 능력 있는 신유의 증을 찾아 나서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원 등으로 나서는 환자도 적지 않다. 전인치유를 위해 인간의 마음 특히 영적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는 전인건강과 전인치유의 시각은 중요하다.

전인치유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영적인 면을 균형있게 고려

19) 실제로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에 대해 정답이 없고 답답한 나머지 이러한 방면의 책에 영감을 많이 받는다. 책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수십권의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들도 실제로 이러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치유입장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환자들은 방황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은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이 하는 끝없는 방향과 고민을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전인치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암세포를 죽이고 동시에 정상세포도 죽여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전통적 치료법을 시술하는 의사와 병원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법만 고집 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암환자의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면 뿐 아니라 정신적 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암환자의 정신상태와 음식물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체계화시킨 전인치유가 무시될 수 없다. 서양의학이 인간의 현 심리와 생리와의 관계와 인간의 생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각각 정신의학이나 역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전인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결과나 관심이 전통적인 암치료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전인치유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토대로 한 영적인 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혼합주의적 전인치유와 구별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4) 환자와 의료인의 신앙성숙

기독교인 암환자에게 전인치유는 현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다짐하는 신앙성숙의 계기가 된다(엡 4:21-24). 필자는 암투병을 통해 스스로 철이 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신앙, 건강, 학문, 대인관계, 캠퍼스선교,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걸쳐 반성하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속에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이전보다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 과거에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머리 속에서만 생각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투병과정에서 마음으로 느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의 고통을, 내가

유명해질 때 소외받는 이름없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원칙대로 살다가 인간관계속에서 받은 상처를 속으로 삭이는 태도를 반성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생겼다. 특히 바르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자는 이러한 사랑이 부족하여 기도가 약했고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쌓아간 삶의 자세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살전 5:15,16) 그렇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고치려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나의 치료과정이고 재발을 막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 환자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병을 고쳐 가는 전인치유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기독교인 의사에게 전인치유를 행하는 과정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전인격을 다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기독교의 역할이 아름답게 열매맺는 과정이다.

성경적 전인치유와 건강은 환자 자신은 물론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나 간호사에게까지 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환자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자기자신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환자나 의사나 모두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난치병 환자들 특히 말기 암환자들에게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삶의 궁극적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5) 복음적 의료문화 전수

전인건강은 복음적인 의료문화를 세대별로 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고통받는 환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전인건강의 회복을 추구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인치료와 전인간호가 효과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되고

탐사역을 통해 전인치료문화와 전인간호문화로서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인건강과 치유를 위해 각자가 공유한 사람들의 은사를 나눔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전인치유나 전인건강의 개념이 기독의료계에서 확산되는 것은 의사 집단에 전인치료문화가 형성되고 간호영역에서는 전인간호문화를 형성하는 기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전인치유문화형성은 연구와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것이다. 복음적 의료문화의 형성은 전인건강의 개념의 틀 속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전인건강의식의 장애요인

이 땅의 병원애, 기독병원을 표방하는 곳에조차도 환자들 특히 암환자와 같은 난치병, 불치병환자에게 전인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독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편협한 건강관에 사로 잡혀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기독교공동체 밖의 요인과 안의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보려한다. 전자의 요인에 정치, 경제, 교육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의료계 내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요인으로 한국교회, 기독대학병원이나 기독병원 등의 요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기독교공동체 밖의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의 고통을 들어주는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들도 정치가들을 뽑고 그들을 감시하는 시민문화가 높지 않다.

경제적 요인으로 정경유착을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펼친 나머지 중소기업

업의 취약성과 정부의 의존성을 통해 일반대중이 건전한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마음과 몸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와 여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는 예술활동의 감상이나 참여는 부유한 계층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적 요인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은 항상 정치나 경제의 밑에서 생각했고, 전인교육이 결여된 입시위주의 교육은 마음과 몸이 건강한 인격체를 만드는 데 한계를 가져다 준 점이다.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국민들이 건강과 의료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다. 어떤 특정한 면의 건강, 예컨대 음식, 정력제, 운동, 기도 등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민간요법에 대한 여과가 없는 맹신적인 태도는 전인건강을 어렵게 하며, 정신적인 면도 각종 연고를 강조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도 정신활동을 편협하게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의료 내적인 요인으로 몇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로 분석적인 서양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는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인간관에 터를 둔 교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압력 때문에 환자에 대한 편협한 인간관을 교육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도 전인교육의 핵심요소인 덕성과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웃사랑 없는 지식인 양성에 초점을 둠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후보를 뽑는 의대 시험이나 사회에 진출하는 전문의시험에 조차 전인을 다루는 생명윤리나 의료윤리 과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일 수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환자가 아니면 고객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점이다.²⁰⁾ 넷째 환자들도 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데도 극히 짧은 시간에 상담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이나 이름난 의사

20) 양길승, 의료개혁에 대하여, 신문로 포럼 (1995, 1월호), 47-51 쪽.

들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의료보험제도의 미비로 한정된 인원과 시간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아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기독교공동체 내적인 요인 몇 가지

여기서는 교회와 기독의료계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교회의 교육의 영향은 기독의료인들의 인간관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첫째 성경적인 인간관을 비롯한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기독의 학도와 기독의사를 비롯한 기독인들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확립할 만한 체계적인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극화 현상, 즉 보수적인 신학의 흐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무시 내지 경시된다든지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시 내지 경시한 나머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이다.²¹⁾ 이러한 교육 속에서 성경적인 전인관이 형성될 수 없고 편협한 건강관을 가지게 된다. 성경적 전인치유의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불순종하여 타락했기에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화 되어 가는 존재라는 인식에 있다. 즉 전인치유는 영혼과 육체 및 환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깊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독의사를 비롯한 기독의료인들이 이러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전인치유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싹트지 않을 수 있다.

21) 조우성, '기독교 학문직업공동체 구축으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에 대응하자', 목회와 신학(1991.10월호), P. 37.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보수신학에서 하나님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사랑을 경시하거나 진보신학에서 이웃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사랑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불가분의 것이다. 최근에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현상은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 시키는 데 장애가 됨은 물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리하면 영적 건강이나 사회적 건강이나 어느 한 편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구원받은 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분리하면 온전한 인격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숙의 이원론의 생각이 팽배되어 예배와 찬송, 선교 등 교회에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학교나 일터에서 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는 생각은 직업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펼치는 것을 가로막아 위선적이고 갈등하는 성격을 형성하고 정신건강을 해치고 빛과 소금이 못되어 사회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삼풍사건, 날치기 통과, 한보 등 각종사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숙이원론에 빠지면 이름만 기독교인이자 기독교정신으로 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앙과 삶의 분리현상은 기독교의료계를 비롯한 기독교공동체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삶의 총체적 면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전인치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선 구원과 삶을 분리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화의 삶을 직업생활에 구현하는 노력이 적다는 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후 생활은 난 몰라라 하는 생각이 배어 있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에게서 전인치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분리현상이 깊이 침투해 있다는 점이다. 예배에만 익숙하거나 아니면 예배 없는 이웃 돌보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 자만심에서 나오고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사랑은 영적 자만심에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끝으로 예배나 찬송 등은 거룩한 것이고 의학 등의 학문이나 의료 등의 일터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성숙이원론이 아직도 교계나 기독교 병원, 기독교의대를 포함한 기독교계통의 대학에 팽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정신으로 의학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앙은 의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과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신앙과 의료행위를 비롯한 직장생활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게 한다. 기독교정신이 이론과 실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지 않고 신앙과 의료가 따로 놀게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성숙이원론은 교계나, 기독교대나 병원 등의 기독교계계가 신앙과 유리된 학문에만 정진하여 기독교 정신없는 전문가를, 신앙만 강조하여 학문이 연결되어 실력부족의 미숙한 전문가를 계속 배출하는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단체들이 예수중심의 공동체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인치유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인들과 관련 기독교단체들이 협력할 때 더욱 아름답게 열매맺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과 관련단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은사와 특기를 개발할 뿐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공동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성경적 전인건강문화와 전인치유문화를 심고 확산하는 데 보다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성령으로 쇄신되어 내실을 기해야 할 기독교단체들이 너무나 많다. 기독교의료계의 단체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의료계통의 단체들이 의료선교사 파송이나 후원하는 데는 협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동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이 땅의 세속적인 의료문화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수지만 모범적인 의료인들이나 의료단체들을 남겨 두셨다. 만약 따로 따로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 두었듯이 이 땅에 성경적 전인치유문화 형성을 위해 귀한 일꾼들을 예비해 놓았다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료인들이나 기독교의료단체들이 예수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면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상당수의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기껏해야 자기 교단의 소속 교회를 기도하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관점에서 타교회나 타기독교단체들을 위해 기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는 데 인위

적인 연합은 이해관계가 작용해서 깨진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게 눈동자가 고정된 사람을 뛰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IV. 전인건강문화의 형성방법

문화는 집단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의 총체다. 기독교문화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총체다. 기독교문화와 세속문화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중심의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인건강문화는 마음과 몸의 조화로운 온전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전인치유문화는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총체다. 전인건강문화와 전인치유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전인치유는 행복의 지표인 전인건강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치유문화가 확산될수록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성경적 전인건강문화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영혼과 몸의 조화로운 온전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다. 즉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혼과 육체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다. 성경적인 전인치유문화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영혼과 육체의 병을 고치고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총체다. 즉 영혼과 육체의 병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총체다. 이러한 관계회복의 전제 없이 성경적 전인건강문화와 전인치유문화가 존재할 수 없고 전인치유문화의 지향점이 전인건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성경적인 전인건강문화와 전인치유문화는 어느 한 기독의료인이나 목회

자, 한 기독의료단체나 한 특정교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인건강과 전인치유를 위한 기독공동체에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기독의학자들과 기독의사들, 기독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 그리고 기독 약사들, 나아가 기독영양학자, 기독영양사, 기독체육인들, 기독예술인, 보건 정책연구자, 건강정보분석자, 보건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인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독생산업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도 포함된다. 예컨대 전인치유를 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무공해 농수산, 축산 생산업자, 무공해 식품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목회자들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기독교공동체가 내실을 다지면서 성경적 전인건강 및 전인치유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이 땅에 기독교문화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널리 확산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²²⁾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백성들은 생존경쟁을 위해 이기심이 불꽃튀는 세속문화의 거센 물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환경공해로부터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잃어 가고 있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는 힘의 논리에 의해 무한경쟁과 공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암 에이즈 기형아 출산, 각종성인병, 정신병을 비롯한 수많은 병들이 증가했다면 증가했지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도 인간의 이기심을 고쳐거나 이로 인한 황폐된 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복음을 실은 전인건강문화 및 전인치유문화의 형성은 기독교문화의 알맹이가 된다. 이것은 구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특히 고통받는 이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강하게 이끌어 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교회가 소홀히 한 양육사명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사회의 교육 부실에 전인교육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나아가 환경우선의 국제경제질서에서 산업경쟁력을 촉진시키며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인건강문화를 위해 기독교공동체 특히 의료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

22) 조무성, *의료와 선교* (1994, 여름, 가을호) 34쪽 ; 조무성, *두레연구원에 바란다*, 두레사상 (서울:두레시대, 1994, 창간호) 27쪽.

엇인가? 앞에서 밝힌 기독교공동체 안팎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경말씀을 읽으며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일의 중요성의 우선 순위와 가능성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요하고 가능한 일부부터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독교 의료공동체 내부에 전인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명자를 찾고 만나고 모이기 위해 힘쓰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전인건강문화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불씨가 될 때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고 작은 불씨들이 큰 불씨를 이룰 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의료인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투병 중인 기독인들이 불씨가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인치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독의료계 내부에서 성경적 전인건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명 받은 의료인들이 요구된다. 기독의료인들은 성경적인 인간관에 입각에서 의학과 의료가 행해지고 있는지 온전한 인간을 위해 각 전문분야의 의학과 의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반성을 통해 성경적 전인건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감대를 기초로 전인건강과 관계 있는 기독교의료단체를 비롯한 기독단체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공식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기구의 성격은 명칭은 어떠하든 간에 옥상옥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훌륭한 단체들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명칭의 공식적 기구가 성경적 전인건강에 관해 중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는 경우 한국의료선교협회소속의 관련단체들과 목회나 신학과 관련단체들로부터 협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성경적 전인치유 및 전인건강처럼 보다 넓게 범위를 잡으면 다른 관련단체들, 즉 영양, 농축산업, 식품가공, 음악, 미술, 체육, 보건정책 등 건강과 직결된 기독단체들로부터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전인치유문화와 전인건강문화 형성을 위해 각 단체들이 상호협력하고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독교 전인치유센터나 전인건강센터 또는 기독교 암센터 등의 구체적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에는 문제분석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책부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및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자원관리부서, 프로그램과 자원을 결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 부서가 포함된다.

셋째 기독교의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특히 성경적 인간관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연구와 토론 및 관련학술대회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교의 의대의 경우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관을 교과과정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독교의료단체에서 좀더 밀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이다. 양의사들과 한의사들 및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누가회의 학술윤리부에서는 이런 모임을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고 학술발표회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²³⁾. 앞으로 관련단체들이 연결되어 성경적인 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인과 병의 치료와 건강회복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보다 집중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 철학자들의 도움이나 이 방면에 앞서 연구한 관련 기독교단체들 예컨대 기독교학문연구회나 기독교대설립동역회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기존자료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²⁴⁾

넷째 기독교의료공동체를 비롯한 기독교공동체에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사상, 기독교간호사상, 기독교약사상, 기독교의료행정인상 등을 비롯한 기독교인상등을

23) 누가회는 성경과 의학의 연결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 1993년 5월 28일 여전도회관에서 동서의학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 1차 학술세미나를 가졌고 1994년 5월 18일 남서울교회 신관 교육관에서 21세기를 향한 성경적 의학이라는 주제로 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1997년 5월 14일 대전 충남의대 강당에서 전인치유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5차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24) 기독교인간관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세계관의 연구는 특히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설립동역회가 기독교세계관 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두 단체를 주축으로 매년 기독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에 관한 자료를 폭 넓게 얻기 위해서는 두 단체 외에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창조과학회, 기독교역사연구소, 두레연구원, 복음주의목회연구원,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 평화통일남북나눔운동, 직장사역연구소, 한국라브리, 학원복음화협의회, 전국기독교인교수모임연합회 등의 기독교지성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지성단체 소개자료집, 1994.4)

성경적 입장에서 정립하고 현실의 기독의료인들이 이러한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배워 나가는 것이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기독인상을 그려 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독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수한 기독인상도 함께 그려 주어야 한다. 학생신분인 미래의 기독의료인은 물론 현재에 일하고 있는 기독의료인에게 있어 성경적 기독의료인상의 정립은 자신의 부족을 고치고 장점을 살려 나가는데 있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인물들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기독의료인들이 더욱 성숙해 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병과 건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의술을 개발하는 학문공동체와 거기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치료를 통해 열매맺는 직업공동체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이론과 실천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기독의사들은 기독의대생에게 본이 되도록 애써야 하며 기독의대생들도 선배들의 본을 따라야 하고 이론분야나 실천분야에 종사하는 기독의료인들이 각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수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죄성을 가진 인간중심으로 뭉치면 죽는다는 각오로 특히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실 전인치유나 전인건강처럼 공동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주체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의료인들을 비롯한 기독의료종사자들과 기독의료단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단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면 기독교공동체의 건강이나 국가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다. 이러한 연합사역을 통해서 기독인들에게 전인건강에 대한 교육, 세미나, 출판물,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에 대해 보건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해 교회와 함께 앞장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의료공동체는 한국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경적 전인치유와 전인건강의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동참한다. 그동안 기독교의료인들은 무의촌진료, 의료선교사 파송과 후원 등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은 봉사를 해왔다. 그러나 기독교의료인들과 한국교회가 상호 협력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퇴치나 잘못된 의료관행이나 제도를 고치는데는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²⁶⁾.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재난 구조협의회와 글로벌케어에 기독교의료인들의 참여는 이런 쪽의 활동에 좋은 시사점을 던진다. 기독교의료인들과 한국교회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의면할 때 복음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교회는 예수중심의 공동체의식만 있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다.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원들을 결합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심각한 사회문제인 암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신학자와 목회자는 암이 문제가 되는 성경적 근거 - 천하보다 귀한 생명(마 16:26)을 제시한다. 기독교철학자는 성경적 근거와 원리에 입각하여 의학을 비롯한 관련학문을 통합시키는 논리적 기초를 놓아준다. 생리학자나 병리학자는 암이 발생하는 생리적인 요인을,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는 심리적 요인을, 환경학자나 화학자는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환경적 요인을, 영양학자나 생화학자는 음식물에 관한 요인을, 예방의학자는 지역적 특성 요인을, 의공학자나 내과 의사, 외과 의사, 한의사는 치료기술에 관한 요인

26) 기독교의료단체에서 의료선교나 의료봉사에 주요한 관심을 두었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데는 소홀히 해 왔으며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며 활동해 왔다. 경제정의실천운동은 불신자도 포함된 보편적 시민운동단체로서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인의협도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서 보편적인 성격은 약하지만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윤실과 같은 성격으로 기독교의료단체가 윤리실천이나 의료문화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을, 정치학자나 법학자 등은 정책적 요인 등을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독교세계관의 토대 위에 탐구한다. 암 퇴치를 위한 기독교시민단체들을 활용하거나 없으면 만들어 캠페인을 벌인다. 기독교언론인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기독교적 문제분석과 처방에 관한 글을 실는다. 기독교정치인과 행정인은 입법과 정책 및 행정을 하면서 기독교적 처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련 기독교시민단체도 호응하고 협조하여 여론을 환기시켜 비기독교정책 결정자들의 지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쓴다. 기독교공동체의 이러한 노력은 보사부에서 1997년도 설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 암센터에²⁶⁾ 전인치료의 관점을 도입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한국교회와 기독교의료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암센터 또는 전인치유센터나 전인건강센터의 설립을 통해 종합적 시각에서 전인치유문화와 전인건강문화형성을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힘껏 전하는 것이다. 기독교 암센터나 전인치유센터는 성서적 전인관에 입각한 것으로 삶의 전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가분의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센터들은 기독교문화 형성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연구, 교육, 운동 기관인 기독교정신문화원을 설립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경적인 전인치유문화와 전인건강문화는 기독교문화 형성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회 멤버가 주축이 되어 전라도 복내에 복내 전인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내실이 잘 다져져서 이러한 센터가 전국각지의 기독교인 개업의원에게까지 전인치유를 확산시키는 핵심체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병이나 건강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단어다. 병은 죽음의 연장선에서 건강은 생명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해 성경적인 전인건강학교를 개설하거나 한

26) 보건사회백서 (1993), 67-68 쪽. 1991년 일산 고양시에 964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500병 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96년의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암에 대한 치료와 연구 외에 전문인력육성, 암 관련단체와의 협력, 암 퇴치를 위한 홍보교육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9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교회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 한국교회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인건강연구회가 주최가 되고 누가회 기독간호사회 치유선교학과가 협찬하여 제 2회 전인건강학교를 분당의 한울교회에서 14개 강좌를 개설했다. 또한 일반국민들을 위해서도 전인건강학교를 개설하거나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이 복음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 퇴치를 위한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다. 올 8월 21일 암 퇴치를 위한 자선음악회-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전인건강 연구회가 주관하고 이탈리아 성악 동우회가 주최가 되어 연 것도 암환자들에게 투병의지를 심고 암의 위험과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있었고 한국 암환자 재활회, 샘물호스피스, 기독 암연구회, 원자력병원 기독신우회가 협찬한 것은 기독교 암 관련 단체를 묶는 데 있었다. 암과 같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실은 전인치유의 접근을 하는 기독교 암센터의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다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몇 개의 종합병원과 연결하여 훈련된 기독인 호스피스의 정성어린 봉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²⁷⁾.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독교 암센터 설립을 통한 복음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을 예로 생각해보자.

우리 나라의 암 사망자수는 1년에 49,032명이고 사망률은 21.3%(동 통계연보)이다.²⁸⁾ 우리 나라는 암사망률이 다른 사망률에 비해 가장 높고 과거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암에 대한 비공개적인 문화풍토를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의 암 사망자를 5만명, 앓고 있는 사람은 40만명, 딸린 가족을 합치면 15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5-6년전 부터 매년 MBC에서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프로

27) 샘물호스피스선교회(회장 원주희 목사)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이 분야에 봉사하고 있다.

28) 통계청, 사망통계원보(94년) 20-32쪽

를 통해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의 심각성을 알리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25%라고 한다면 암환자이거나 딸린 가족의 75%가 전도대상자들이다. 암환자에게 복음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 그들이 당하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 내며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딸린 가족도 마찬가지다. 딸기 암환자일수록 이러한 복음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목회자 단독으로 몇 개 교회가 경쟁적으로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복음전파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전인치유를 담당하는 기독의료인들이나 관련단체들의 공동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독교 암센터의 설립은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전인관에 입각한 암 연구모임이 기독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세계각국의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관하는 준비 작업을 하면서 암 연구센터와 암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암에 대한 교육을 하며 이러한 노우하우를 토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암센터로 발돋움하는 것도 일의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건물이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전인관에 입각하여 암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흠어져 있는 기독인 의료인들을 모으고 성경적세계관으로 묶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가 심각한 문제지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쪽은 한국교회와 협력을 통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리라 생각한다. 기독교 암센터가 전인관에 입각한 세계적인 암센터로 발돋움 한다면 복음전도의 영역은 훨씬 넓어지게 될 것이다.

여덟째 성경적 전인건강문화를 통한 해외선교를 하는 것이다. 해외선교는 팀선교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크리스찬들을 필요로 한다. 성경적 전인치유문화 형성이나 전인건강문화에 기여하는 풍부한 인적자원들이 해외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선교나 해외선교를 보완하며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기독교문화를 심으면서 복음을 알차게 전하리라 생각한다.

V.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실천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국민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자연적인 환경이 병들어 가는 한국병이 날로 깊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독교의료공동체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이 땅의 교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해 추구해야 할 21세기 비전은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해 성경적 전인치유문화 및 전인건강문화의 형성을 통한 복음전파의 비전 곧 전인건강운동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복음을 실은 전인치유문화와 전인건강문화의 형성을 추구하는 비전을 의미한다.

1. 비전의 중요성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속문화는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이기주의, 배금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등의 세속적 가치관이 삶 속에 더욱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²⁹⁾. 이러한 가치관들이 지배하는 세속문화의 배후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뺀 개치는 이상숭배의 정신이 깔려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건전하지 못한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암, 정신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에이즈, 기형아 출산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암발생의 연령층이 성인층은 물론 어린이에게까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악순환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가속화될 것 같다. 인생의 꽃을 채 피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000년대를 앞두고 한 세기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기독교인

29) 조무성, 앞의 글 (두레사상, 1994년 참간호), 11-12쪽.

들과 교회들이 세속문화를 타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겁다. 특히 전인치유와 전인건강에 있어 귀한 은사와 사명을 가진 기독의료인들과 목회자들의 사명과 책임은 막중하다. 기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과 몸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잘못된 건강의 시각을 바로 잡아 전인건강의 회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전인치유문화 형성과 전인건강문화 형성은 기독교 문화 형성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마음과 몸의 질병을 살피고 회복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안의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세속문화를 타파하는 길은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베푸신 복음사역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선교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복음에 빛진 자로서 우리 나라 독인들과 교회들에게 국내외적으로 지상명령을 충실히 감당할 책임은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크다. 우리 나라의 기독인들이 신자답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지상명령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상명령 중 전도사명(마28:19)의 열심에 비해 안타깝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사명(마 28:20)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다. 교회를 외면하는 초·중고 대학생,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고 비기독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전파의 첨예기에 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국가사회는 국민의 건전한 정신인 교육의 주춧돌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라는 기둥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밖으로는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안으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어,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으로 국가의 기초인 국민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기독 공직자들의 연루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이 희미해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사건

이다³⁰⁾. 국가와 탄탄한 기초는 건전한 시민문화이고 건전한 시민문화의 바탕은 기독교문화이다. 기독교문화는 거룩한 교회에 뿌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건전한 시민정신이 정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정신의 뒷받침이 없는 정부는 부패한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나라가 처한 총체적인 한국병을 치료하는 기초다. 한국병은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각계 각층에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총체적인 한국병을 치료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은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예수중심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러한 시점에 전인건강연구회를 비롯한 신실한 단체가 연합하여 인건강운동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한국교회 및 사회의 건강을 위해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기도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에는 전인건강연구회, 치유선교학회, 대한기독교간호사회, 의료선교협의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의료 NGO,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대학 설립동맹회, 기독교역사연구소, 직장사역연구소, 한국창조과학회, 복음주의 목회연구원, 교육연구원, 두레연구원, 한국라브리, 평화통일남북나눔운동연구위원회, 가나안농군학교, 전국기독교인교수모임연합회, 학원복음화협의회, 재난구조협의회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들은 인격체의 건강, 가정건강, 직장이나 사회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병의 치료를 위해 이 땅에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병에 대해 바른 건강개념을 심고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건강문화와 치유문화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바른 건강문화를 심어서 이 날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인건강운동의 비전은 구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특히 고통받는 이웃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강하게 이끄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한국교회가 소홀히 한 양육사명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사회의 교

30) 조우성, 삶의 성수대교 정직하게 시공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4.11월호), 2

육 부실에 전인교육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환경 우선의 국제경제질서에 산업경쟁력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2. 비전 실천의 전제

비전이 없으면 개인이나 단체는 표류한다. 그러나 비전을 위한 실천의 노력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빠진다. 따라서 비전을 강조하면 할수록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 실천을 강조할수록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로서 예수 중심의 핵심공동체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수 중심의 몸된 지체의식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핵심공동체이다. 이러한 핵심공동체는 성경적 전인치유문화 형성을 위해 작은 불씨가 되고 구심체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핵심체의 구성을 위해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 이러한 핵심체는 예수님에게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기독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간이 머리가 되는 단체는 생명력이 없고 자기과시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체의 구성을 위해 기독교의료계를 비롯한 기독단체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중 사심없고 이 방면에 은사가 있는 세대별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 연합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이다. 사심이 있으면 분쟁이 따르고 은사가 없으면 무능해지고 세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자의 부족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작은 동심원부터 결속하고 그 다음 큰 동심원으로 나아가는 선 내실 후 확장의 방법으로 핵심체를 확대해 가야 한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을 확대시켜 나갔다. 처음부터 내실을 기하지 않고 확장에 신경을 쓰다 보면 비전이나 목적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인치유와 관련된 기존의 기독단체들이 가급적 연합하고 협조하되 소속단체는 성령 안에서 내실을 기하고 계속 쇄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단체와 기관을 창설하면 인적자원과 물질 자원이 모자라기 쉽고 시간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 중심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구성된 핵심공동체를 주축으로 해서 앞에서 말한 전인치유문화 형성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3. 전인건강운동의 구체적 비전과 사역

전인건강운동은 주된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왜곡된 건강을 고치고 바른 건강개념을 심고 기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위해 전인건강과 치유 및 암 퇴치 프로그램이나 이론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환자들을 위한 전인건강센터의 건립, 난치병환자 특히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전인치유센터의 건립, 암환자 특히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기독교 암센터의 건립을 통해 센터모델을 현실에 이룩하는 것이다. 전인건강운동은 예수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신실한 단체와 유대와 협력과 후원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예수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다른 것으로 뭉치면 죽는다는 시각에서 이런 점을 특히 강조한다. 기존단체가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 하나라는 의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세속문화와 구조악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전인치유 문화 형성과 전인건강문화 형성은 기독교문화 형성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인건강연구회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누가회, 치유선교학회, 기독간호사회, 기독교학문연구회 등 인격체의 건강과 직결된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사회건강을 추구하는 단체들 가정사역연구소와 직장사역연구소와 같은 가정과 직장의 건강을 추구하는 단체들 그리고 교회환경연구소와 같은 환경의 건강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예수중심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전인건강운동을 펼쳐나간다면 한국교회와 사회를 도와 한국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전인건강운동을 통해 이 땅에 성경적 전인건강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공동체 형성이 가속화되고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 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³¹⁾. 이 일을 위해 뜻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뜻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위해 애쓰는 각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성경적 전인치유문화와 전인건강문화 형성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의 구심체를 굳게 세워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힘쓸 때가 아닌가! ❀

31) 전인건강연구회가 다른 단체와 연결을 하고 단체들을 소식자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예수공동체의식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 연결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기독교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로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의 건강, 자연의 건강을 추구하는 단체들로 나누어진다. 전인건강연구회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누가회, 성경적 건강과 선교와의 연결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아시아연합신학원의 치유선교학과 학회, 기독교간호사회,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독교학문연구회,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연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교회환경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이 땅에 지속적으로 전인건강문화를 심어 기독교문화를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비롯한 각 단체들이 한국교회를 도와 인맥과 정보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구심체가 형성되도록 각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계속 기도해주길 바란다.

알립니다.

1. 가까운 분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권해 주십시오. 과월호가 필요하시면 기학연 사무실 정옥희 간사(T. 02-883-5809)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분이 있는 대로 보내 드립니다.

2. 회비 또는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일반회비 연 3만원, 또는 본지 구독단 원하시면 15,000원을 잇기 전에 아래 계좌로 보내 주셔서 기학연 사업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037-01-0434-928 (김승욱) 조흥 342-01-121230 (김승욱)
상업 142-07-028352 (김승욱) 주택 419801-93-201509 (김승욱)
우편대체 012401-31-1928258 (기학연)

3. 좋은 글을 보내 주십시오. 글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기학연 사무실의 정옥희 간사(T. 02-883-5809)에게 말씀해 주시면 편집계획에 고려하겠습니다.

4. 글의 종류에는 구애받지 마십시오. 논문, 에세이, 시, 소개문 등 모든 회원과 나누어 유익한 자료면 좋습니다. 단, 저자께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주의하시고 본지 과월호를 참고하셔서 글의 형식을 갖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